‘태권도 성지 무주’ 저력 입증

무주군학생태권도시범단원들, 오사카 라이츠 국제태권도대회서 메달 획득

무주군학생태권도시범단원 15명이 ‘2025 오사카 라이츠 국제태권도대회’에 참가해 실력을 뽐냈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군학생태권도시범단원들은 지난 13일과 14일 일본 오사카 가도마시립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이 대회 ‘품새 부문’에 출전해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를 획득했다.

설천초등학교 태권도 겨루기 선수부 학생 5명도 이번 대회에 참가해 전원 동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올렸다.

무주군학생태권도시범단원들은 대회 전후로 나라현 국제고등학교와 오사카 라이즈 국제태권도대회 현장에서 품새와 격파, 태권무 등 다양한 시범 무대를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또한 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세계 관광기구 선정, 최우수 관광마을 무주’, ‘환경지표 곤충 반딧불이의 고장 자연특별시 무주’를 홍보하는 시간도 가졌다.

무주군학생태권도시범단원들은 지난 13일과 14일 일본 오사카 가도마시립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25 오사카 라이츠 국제태권도대회’ 품새 부문에 출전해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를 획득했다.

15일 고베시 태권도협회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무주군은 이들과 협력해 △태권도 문화교류 활성화, △태권도 교육사업 추진, △태권도 보급·진흥을 위한 상호 연계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장수군(군수 최훈식)은 2025년 보건복지부가 지역복지사업 평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부문에서 개청 이래 최초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매년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부터 이행까지 전 과정을 종합 평가한다.

올해 평가는 △계획내용의 출실성 △시행결과의 우수성 △지역 주민의 참여 및 만족도 △시행과정의 적정성 △사업관리, 역량강화 노력의 5개 분야에서 진행됐다.

1차 심사를 통해 30개 시군구가 선정되고 이후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우수기관이 결정됐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복지뿐 아니라 고용, 문화, 교육, 보건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으로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계획이다.

장수군은 ‘주민참여 풀뿌리마을공동체 장수’라는 비전 아래 똑! 똑! 복지울타리 운영, 독거노인 공동돌봄시설 운영 등 총 8개 추진전략과 8개 중점 추진사업, 39개 세부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군민 중심의 복지체계 구축에 힘써왔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지역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장수군 자체 복지모델인 ‘장수형 똑! 똑! 복지울타리’를 중심으로 복지안전 울타리 행복마차, 행복우편 배달서비스 등 핵심사업을 연계해 운영한 점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사회보장 체계 구축의 좋은 사례로 꼽혔다.

또한 세부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조정하며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점이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계획 이행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도 우수기관 선정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됐다.

군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 기반의 맞춤형 복지 전략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보장 체계 구축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이미란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수상은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낸 성과이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군정 운영 방향·핵심 전략 공유

진안군,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진안군은 18일 군청 강당에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중장기 군정 운영 방향과 핵심 추진 과제를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각 국·소·실·과소장과 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민선 9기 출범을 대비한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진안군은 2025년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전국 3위 달성, 국가예산 5,025억원 확보, 57건의 공모사업 선정 등 행정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농촌유학 거주시설과 행복주택 조성으로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관광 축제 및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로 생활인구를 증대시켰으며 그 결과 인구가 올해 처음으로 12월 12일 기준 80명이 증가하는 긍정적 변화를 이루었다.

또한 스마트팜 단지 조성으로 농업구조를 혁신하고, 로컬푸드 매장 누적 매출 500억 원을 달성하며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더불어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A등급 달성 등 총 45건의 수상으로 행정력을 입증했다.

2026년 주요 업무로는 △군정 비전 실현을 위한 중점 정책,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 △주민 체감형 행정 서비스 확대 방안, △국·도비 확보 전략에 중점을 둔 과제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과 보완 사항을 향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군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진안로컬푸드-굿데이, 업무협약 체결

진안군은 지난 17일 진안로컬푸드 직매장 진안점에서 진안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 굿데이(진안군 장애인보호작업장)와 함께 ‘진안군 지역 먹거리 선순환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로컬푸드 거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 보호작업장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진안로컬푸드는 매장 내 휴게공간을 활용해 장애인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매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운영 환경과 유통·판매를 지원하게 된다. 굿데이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베이커리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장애인 직업 재활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일자리 운영에 힘쓸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이해양 무주군의원, 버스공영제·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복지수당 지원 독촉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원이 무주군 버스공영제 시행의 구체적 계획과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당 지급 지연사유를 묻고 예산관리에서 국·도비 미매칭 등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무주군수의 입장을 물었다.

이해양 의원은 제32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서면군정질문에서 “버스공영제 도입에서 노선 협상은 가장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군수가 직접 나서서 조정하고 이끄는 일에 대한 무주군수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황인홍 군수는 “버스공영제는 초기 투자비와 연간 운영비가 크게 증가하는 구조인 만큼 현행 민영체계에서 보이는 한계를 보완하지 않고 공영제로 전환할 경우 재정부담 증가와 운영안정성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다만 노선 조정 등 공영제 도입 핵심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군수로서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이해양 의원은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복지수당은 지난 11월 열린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장이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무주군수의 의견을 재차 물었고 이에 대해 황인홍 군수는 “형평성과 재정 여력을 면밀히 살펴 현실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미세먼지 저감 평가 ‘우수기관’ 선정

무주군이 ‘2025년 미세먼지 저감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했으며, 도내 14개 시·군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7개 분야 28개 지표를 점검했다.

무주군은 △비상 저감 조치 이행, △제6차 계절관리제 이행, △무공해자동차 보급 확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롤링포그 운영, △미세먼지 저감 대책 주민 홍보 등에서 호평을 받았다.

특히, 100개 마을에서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진행해 주민 실천형 미세먼지 저감 문화를 조성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2026년 농업기술 시범사업 신청·접수

장수군은 2026년 농업기술 시범사업 대상자를 오는 다음달 7일까지 신청·접수한다.

농업기술 시범사업은 지역 농가에 최근 개발된 신기술을 보급하고 농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범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는 농업 신기술의 현장 보급과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것으로 보조금과 자부담을 포함해 총 15억원이 투입되며 총 20개 사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농업인 영농활동 기반조성사업 △준고랭지 여름배추 안정생산 체계 구축 시범 △친환경 쌈채류 고설재배 기술지원 사업 등이다.

여기에 △대체품종 활용 과수 우리품종 특화단지 조성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차단망 보급 시범 등 기후 변화와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도 해당된다.

신청자격은 장수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시범 및 지원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고 농업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의지가 있는 농가이며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해 농업기술센터 담당팀 및 읍면 농업인상담소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자 의무 교육 실시

진안군은 18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자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별로 2부에 걸쳐 진행됐으며, 제도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교육은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한 농가주 255명과 가족 초청을 희망한 관내 결혼이민자 및 그 배우자 1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육에서는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안내하고, 고용주 준수사항, 근로기준법, 인권 보호, 범죄 예방, 소방 안전 등 법무부 의무교육 내용이 중점적으로 안내됐다. /진안=우태만 기자